

기술 2026-096 2026.08.06.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기산텔레콤(03546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민충기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텔레콤(035460)

통신·방위·항공, 세 개의 날개로 세계 시장을 향해 비상하는 종합 무선통신장비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박병기
설립일자	1994.09
상장일자	1999.11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제품	광모듈, PCS중계기, WLL시스템 제조 등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2,11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307
발행주식수	14,920,340
52주 최고가(원)	7,230
52주 최저가(원)	1,683
외국인지분율	5.37
주요주주	박병기

■ 30년 기술 축적 위에 선 종합 통신장비 전문기업

기산텔레콤(이하 동사)은 199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된 무선통신장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1999년 코스닥 상장 이후 30년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Wi-Fi 액세스포인트(AP), 비상방송장비 등을 자체 설계·제조하여 국내 3대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주파 대역에서의 RF 설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안테나 기술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역량은 국내 중계기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재현하기 어려운 강력한 기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및 일본 TELEC 규격 인증 체계를 갖춰 국내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통신·방위·항공 3대 사업으로 구성된 다각화 포트폴리오

동사는 통신사업(이동통신 광중계기·Wi-Fi AP 등), 방위사업(무선통신보드·위성통신단말기·K2전차 내장훈련장치 등), 항공사업(DVOR, DME, ILS 등 항공항행안전무선장비)으로 구성된 세 축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주)모피언스는 국내 최초·유일의 항공항행안전시스템 개발·제조사로서, 세계 23개국 500여 개소 이상에 시스템을 설치·운용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주)현대제이콥은 폴란드 K2전차 수출사업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등 K-방산 수출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글로벌 확장 전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동사는 5G 인빌딩 중계기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일본 TUBEK 현지법인을 통한 일본 통신 3사 대상 DAS 중계기 입찰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일본 수출향 중립형(Neutral-host) DAS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고덕비즈밸리 입주를 통한 사업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738.8	8.97	44.1	5.97	38.0	5.14	8.76	4.68	101.19	223	2,664	11.39	0.96
2024	930.8	25.98	49.5	5.32	80.9	8.69	16.39	8.05	114.71	481	3,206	3.64	0.55
2025	994.7	6.87	80.8	8.12	58.0	5.83	8.36	4.76	95.91	290	3,743	6.60	0.51

기업경쟁력

자체 RF-SW 통합 기술력

- 고주파 RF 설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안테나 기술을 결합한 자체 통합 솔루션 개발 역량 보유
-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5G 인빌딩 중계기, Wi-Fi AP 등 핵심 제품의 독자 설계·제조 역량 확보
- 수년간 축적된 필드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 기반의 강력한 기술 진입장벽 구축

3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통신(DAS-Wi-Fi AP)·방위(무선통신보드·위성단말기)·항공(DVOR-ILS-DME) 부문 연결 운영
- 자회사 (주)모피언스를 통해 세계 5개 내외 공급사만이 참여하는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시장에서 23개국 수출 실적 보유
- 자회사 (주)현대제이콤을 통해 K2전차 내장훈련장치 폴란드 수출 등 K-방산 수출 확대 국면에서 안정적 수익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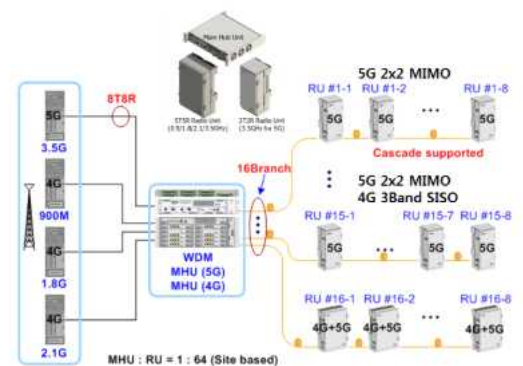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및 5G 인빌딩 중계기

- 기지국 신호가 미치지 않는 실내·지하·음영 구역에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자체 설계 광중계 장비로, KC인증 및 일본 TELEC 인증을 보유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항공항행안전시스템 (DVOR-ILS-DME-MLAT)

- 자회사 (주)모피언스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항공항행안전 무선장비 시스템으로, 국내 주요 공항 20여 개소 및 세계 23개국 500여 개소 이상에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5G Multi-band DAS>



시장경쟁력

글로벌 DAS 시장 성장

- 5G 확산에 따른 실내 커버리지 수요 확대로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구조적 성장 인프라 시장으로 평가됨.

국내 시장 진입장벽 및 선도적 지위

- 국내 통신사업자의 BMT(Benchmark Test) 제도 통과 기업만 입찰 참여 가능한 구조로, 당사는 KT·SKT·LGU+ 등 국내 주요 3사 모두와 공급 계약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내 공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항공항행안전 시장 독점적 지위

- 항공항행안전 시스템은 전세계 5개 내외의 공급사만이 활약하는 진입장벽 높은 시장으로, 자회사 (주)모피언스는 국내 유일의 자체 개발·공급사로서 해외 23개국 직접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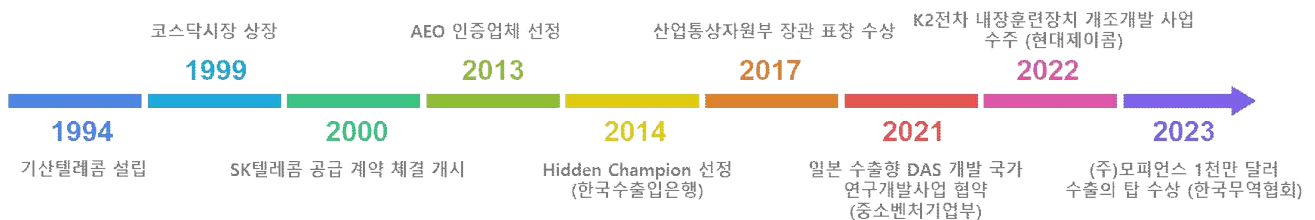
통신·방위·항공 사업을 연결하는 종합 무선통신장비 전문 제조그룹

동사는 1994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이동통신 중계기·Wi-Fi AP 등 무선통신장비를 자체 개발·제조하여 국내 3대 통신사에 공급해 온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방위산업(자회사 현대제이콤)·항공산업(자회사 모피언스)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으며, 세계 23개국에 항공항행안전시스템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4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되어 1999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무선통신장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발행주식 총수 14,577,340주, 자본금 72억 8,867만 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립 초기 이동통신 중계기 단일 사업에서 출발하여, 이후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모피언스와 방위통신장비 전문 기업 (주)현대제이콤 등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며 통신·방위·항공의 3축 포트폴리오 구조를 완성하였다. 또한 2000년 SK텔레콤과의 최초 공급 계약 이래 국내 주요 통신 3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Hidden Champion 선정, 2021년 일본 수출향 DAS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2023년 모피언스 1천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 등 꾸준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박병기 대표이사가 전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병기 대표이사는 1959년 11월생으로, LG전자의 전신인 금성통신(주)에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이후 금성정보통신(주)에서 1993년까지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며 통신장비 분야에서 10여 년간 핵심 연구 경력을 쌓았다. 이후 1993~1994년 기산시스템 대표이사를 거쳐 1994년 (주)기산텔레콤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32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 연구자 출신 창업 경영자로서 RF 설계, 안테나 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방향성을 직접 주도해 온 경력은 동사의 기술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기는 2028년 3월 28일까지로, 경영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는 박병기 대표이사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4,484,800주(30.77%)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관계인으로는 연종숙(449,971주, 3.09%), 김교식(199,816주, 1.37%)이

기산텔레콤(035460)

포함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은 5,134,587주(35.22%)에 달한다. 소액주주(7,794명)의 보유 주식수는 8,630,437주(59.2%)에 해당하며 전체 주주 7,802명 중 소액주주 비율은 99.9%로, 소액주주 중심의 분산된 주주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사주조합은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통신사업, 방위사업 및 항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통신사업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Wi-Fi AP, VoIP, FM/DMB 비상방송장비	기지국 음영지역 해소용 유·무선통신시스템 장비 자체 제조·판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사 공급)
방위사업	무선통신보드, 위성통신단말기, K2전차 내장훈련장치(ETU), 차륜형장갑차 보병전시기	(주)현대제이콤 운영, 방위산업물자 및 통신·정보보호장비 개발·제조·납품 (현대로템 협력사로 폴란드 K2전차 수출 참여)
항공사업	DVOR, DME, ILS(계기착륙시설), MLAT(다변측정감시시스템)	(주)모피언스 운영, 국내 최초·유일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자체 개발·제조·수출 (세계 23개국 500여 개소 운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통신사업은 동사의 모체 사업으로, 기지국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실내·지하·터널 등 음영지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및 5G 인빌딩 중계기의 설계·제조·납품이 핵심이다. 동사는 RF 설계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까다로운 기술 요건과 Customizing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국내 통신사업자의 BMT를 통과한 검증된 공급사로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Wi-Fi AP, VoIP 게이트웨이, FM/DMB 비상방송장비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현지법인 (주)TUBEK을 통해 일본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립형(Neutral-host) DAS 개발 등 해외 시장 공략 기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은 자회사 (주)현대제이콥이 운영하며, 무선통신보드, 위성통신단말기, K2전차 내장훈련장치(ETU), 차륜형 장갑차용 보병전시기 등 방위산업물자와 통신·정보보호장비를 개발·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서 K2전차 ETU의 폴란드 수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성통신단말기를 개발·전력화하여 중동·동남아·이탈리아·동유럽 등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차세대 유·무인 복합무기 체계 개발 협력, K1계열 전차 차체전원분배상자 디지털화 개조개발 등 첨단 방위체계 사업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 WiFi AP 사업 주요 제품(Tri-band AP, Access Controller, Backhauling System)



자료: 동사 홈페이지

항공사업은 자회사 (주)모피언스가 운영하며, 국내 최초·유일의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자체 개발·제조사로서 세계 5개 내외의 공급사만이 활약하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항공항행안전시스템(DVOR, DME, ILS, MLAT)은 ICAO 국제 규격에 부합하며 국내 20여 개 공항 및 세계 23개국 500여 개소 이상에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인도 현지법인 MOPIENS INDIA PRIVATE LIMITED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아시아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통신사업 부문은 2025년 5G 인빌딩 중계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공급 물량을 유지하였으며, 국내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고도화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항공사업 부문에서는 자회사 (주)모피언스가 해외 직수출을 대폭 확대하여 연결 기준 전체 매출에서 항공사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인도·중동·동남아 지역 공항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위사업 부문에서는 자회사 (주)현대제이콥이 폴란드 K2전차 수출 협력,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차세대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는 일본 통신 3사 대상 DAS 중계기 입찰 참여를 통한 일본 시장 재진입이 핵심 모멘텀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일본 현지법인 (주)TUBEK 및 TELECOM 인증 체계를 활용하여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6G 기술 표준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중계기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덕비즈밸리 자족기능시설 입주(2023~2026년 투자 진행 중)를 통해 생산·연구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고속도로 비상방송설비 신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II. 시장 동향

5G 확산이 견인하는 고성장 DAS·무선통신장비 글로벌 시장

글로벌 DAS 시장은 5G 인빌딩 커버리지 수요 확대와 스마트 빌딩·교통 인프라 증가를 배경으로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방위 무선통신 시장 역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방예산 확대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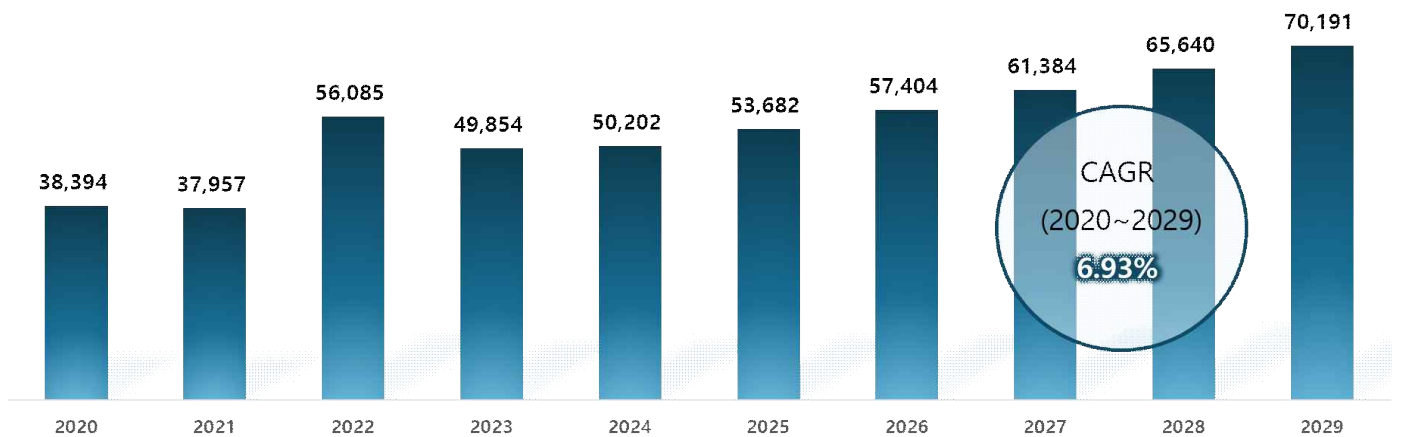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동사의 핵심 목표시장은 5G 확산에 따른 실내 커버리지 인프라 수요 확대가 집중되는 글로벌 DAS·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이며, 방위 및 항공 시장은 중장기 안정 성장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주파 5G 대역의 실내 투과 한계로 인해 인빌딩·터널·지하 공간에서의 DAS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어, 동사의 주력 제품군이 시장 수요와 구조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일본 시장 재진입 및 아시아·태평양 신흥국 공항 인프라 확충 수요는 통신·항공 부문 모두에서 동사의 해외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외부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2026)에 따르면,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시장의 2020년 국내 시장 규모는 38,394.18억 원에서 연평균 6.93%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50,201.61억 원의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 목표시장의 규모는 70,19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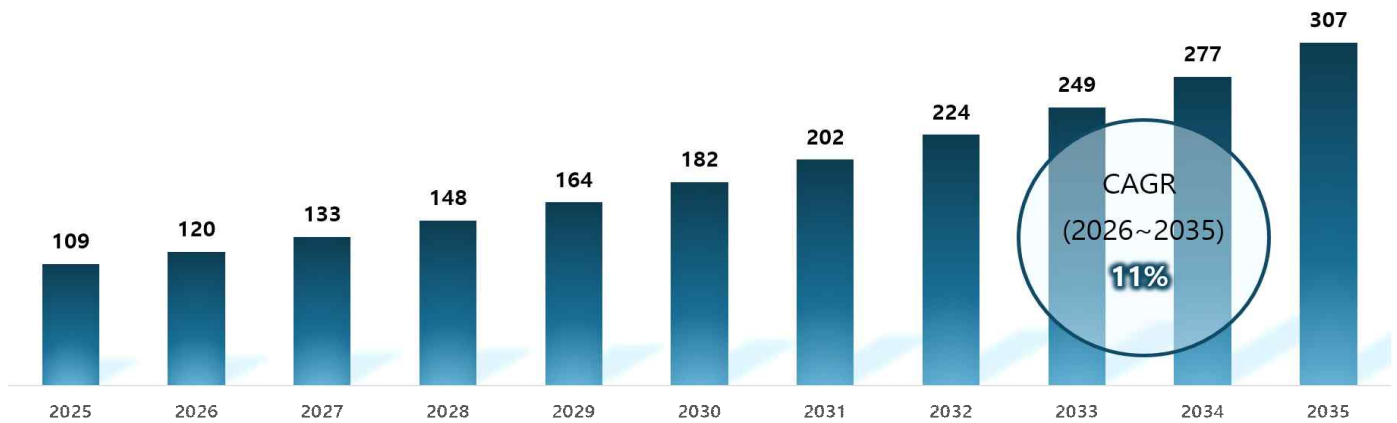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국가데이터처(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Global Market Insights, 「Distributed Antenna System Market」 통계자료(2026)에 따르면, 글로벌 DAS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09억 달러, 2026년 약 120억 달러로, CAGR 11%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인은 고주파 5G mmWave 대역의 실내 투과 한계로 인한 DAS 필수 인프라화, 스마트 빌딩·교통 허브(공항·지하철·경기장 등)의 무선 커버리지 고도화 수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G 보급 확대에 따른 신규 시장 형성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약 9.7~11.3%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어 동사의 일본 시장 재진입 전략과 부합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글로벌 DAS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글로벌 DAS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Distributed Antenna System Market」 통계자료(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글로벌 DAS 시장은 5G 고주파 대역의 실내 투과율 한계로 인해 인빌딩·지하·터널 환경에서의 중계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DAS(광케이블·동축 복합)와 중립형(Neutral-host) DAS가 시장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립형 DAS는 하나의 인프라로 복수 통신사업자를 수용할 수 있어 설치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일본·유럽·북미 시장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시장은 SKT·KT·LGU+ 등 통신사업자의 BMT 통과 기업에 한해 입찰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폐쇄적 시장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고 기존 공급사의 점유율이 유지되는 과점 특성을 갖는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DAS 산업은 RF 설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안테나 기술이 긴밀히 통합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으로, 5G mmWave 대역 대응, 디지털 DAS 전환, AI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등이 핵심 기술 개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경쟁 구조는 CommScope(Amphentol 인수), Corning(Airspan 매각 후 재편), JMA Wireless, SOLiD 등 대형 플레이어 중심이나, 하위 호환성 유지와 사업자별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되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로컬 전문 업체가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경쟁 구조는 케이엠더블유, 쏘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치에프알 등 중견 통신장비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BMT 통과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쏘리드	• 국내 최대 규모의 DAS 전문 기업으로 5G 인빌딩 중계기·소형셀을 주력으로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DAS 브랜드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케이엠더블유	• RF 필터, 안테나, 5G 기지국 장비 등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부품·장비 업체로, 국내외 통신사업자 및 글로벌 NEP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에이치에프알	• 유·무선 통신장비 솔루션 기업으로 5G 중계기, 광전송장비 등을 주력으로 KT·SKT 등 국내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RF-SW·안테나 자체 기술로 완성한 30년 연구개발의 결실

동사는 1996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RF 설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안테나, 신호처리 등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이동통신 광중계기, 와이파이 AP, 항공항행안전시스템 등 주력 제품 전반에 걸친 독자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동통신 중계기 및 무선 인프라 핵심 기술

동사는 1996년 11월 (주)기산텔레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무선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축적해 왔다. 이동통신 광중계기(DAS) 분야에서는 LTE/5G 멀티밴드 환경에서 고효율 신호 중계를 실현하는 광전복합케이블 기반 DAS 기술을 보유하며, 이는 특허 제10-1578130호(기지국 장치의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한 아날로그 광 중계 장치 및 방법)로 등록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LTE OFDMA 방식에서 Cyclic Prefix(CP)를 최대 활용하여 기지국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고유한 방식으로, 단일 광케이블을 통해 복수의 서비스 유닛(SU)에 신호를 분배하여 설치 공사 비용과 운용 복잡도를 동시에 절감하는 사업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MIMO 방식 신호 중계를 단일 전송로로 실현하는 기술(특허 제10-1282069호, MIMO 통신을 위한 무선 중계 장치)을 보유하여 5G 환경에서의 다중 안테나 중계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RF 트랜시버를 활용한 전계강도(RSSI·TSSI·VSWR) 측정 자동화 기술(특허 제10-2806634호)로 중계기 품질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5G 인빌딩 환경에서는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적용 RF 중계기를 자체 개발하여 5G 간섭 환경에서의 통신 품질 최적화를 달성한다.

■ Wi-Fi 액세스포인트 및 재난방송 무선 인프라 기술

동사는 Wi-Fi AP 분야에서 802.11ax(Wi-Fi 6) 기반 멀티밴드 고밀도 환경 대응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멀티밴드 Wi-Fi AP에서 발생하는 밴드 간 사이드밴드 신호 간섭을 제거하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고 있다(특허 제10-2088773호 및 제10-2159535호, 사이드밴드 신호를 억압/제거하는 멀티밴드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 이 기술은 복수의 Wi-Fi 채널이 동시 운용되는 고밀도 환경에서 수신 채널 간섭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AP 성능을 극대화하는 원천 기술로, Wi-Fi 관련 제품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난방송 분야에서는 터널·지하 공간의 FM/DMB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 시스템(특허 제10-2459515호, FM/DMB 객실 비상방송 시스템 및 특허 제10-2692495호, 혼합 선로중복기 방식의 터널내 중계 장치 등)을 자체 개발하여 고속도로, 철도, 지하시설 등 공공 안전 인프라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 필터링을 통해 재난방송 채널의 전계강도를 선택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특허 제10-2573820호)은 별도의 출력 증폭 없이 재난방송 신호 품질을 제고하는 효율적 솔루션으로, 국내 비상방송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차별성을 제공한다.

■ 항공항행안전 및 방위 분야 기술

자회사 (주)모피언스는 국내 유일의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자체 개발사로, DVOR(도플러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DME(거리측정장비)·ILS(계기착륙시설)·MLAT(다변측정감시시스템) 등 ICAO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핵심 장비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 특히 다중경로 오차를 30% 저감하는 SFOL 펄스 기반 차세대 DME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미국 FAA의 APNT(Alternative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항행안전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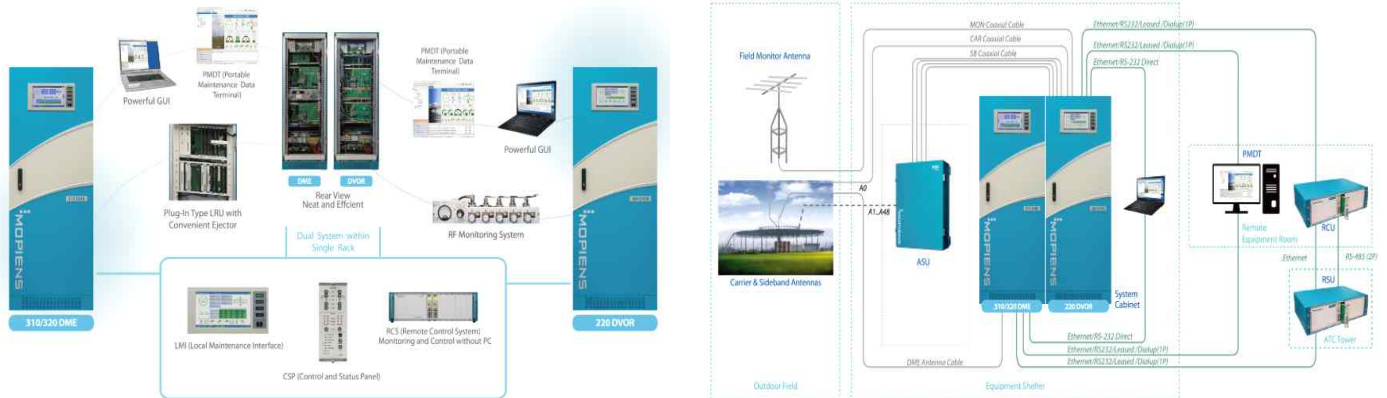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CE인증(ILS LOC·GP, CE0681) 및 신제품인증(NEP, NEP-MOCIE-2007-057)을 보유하여 해외 수출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 자회사 (주)현대제이콤은 K2전차 ETU, 위성통신단말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전시기 등 방위 통신전자장비의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K1계열 전차 차체전원분배상자 디지털화 개조 등 부품 국산화 사업에서 주관기업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신호처리 기반의 AI 적용 가능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다.

그림 6. 재난방송 무선 인프라 FM/DMB(Processor, Repeater)



자료: 동사 홈페이지

그림 7. 항공항행안전시스템 주요 장비(DVOR, D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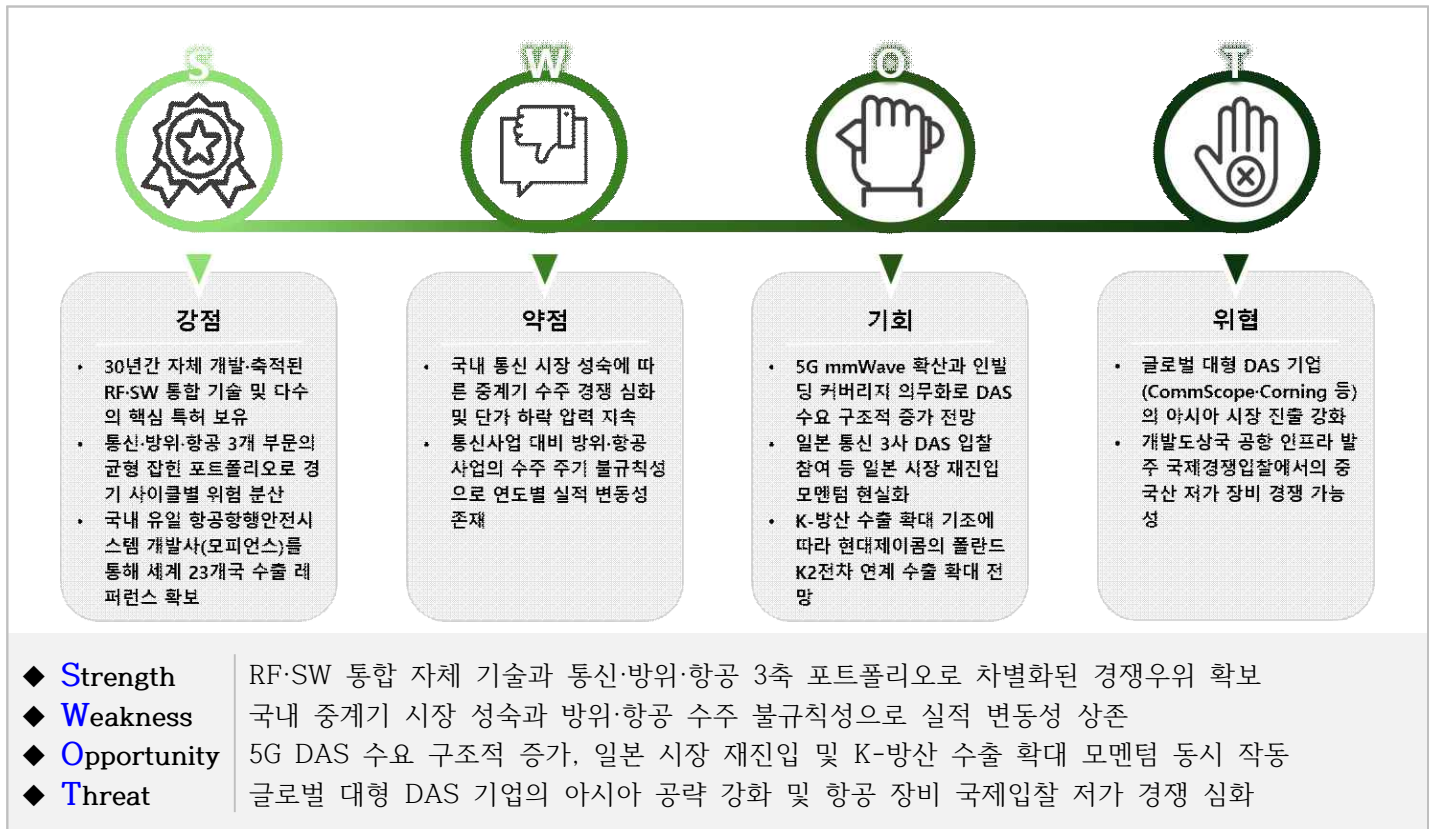


자료: (주)모피언스 홈페이지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①일본 수출향 중립형 DAS(멀티오퍼레이터·멀티밴드) 개발, ②802.11ax(Wi-Fi 6) 와이파이 AP 및 Access Controller(AC) 자체 개발, ③5G RF 중계기(ICS 방식) 개발, ④FM/DMB 재난방송수신설비 및 터널 중계 장치 개발, ⑤K1계열 전차 차체전원분배상자 디지털화 개조개발(현대제이콤 주관), ⑥차세대 DME(SFOL 펄스 기반, 다중경로 오차 30% 저감) 사업화(모피언스 주관), ⑦ILS 계기착륙시설 자체 개발(모피언스)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 비중이 R&D 비용의 약 56%(제32기 기준 39억 4,000만 원)로 가장 높아 기술 인력 중심의 연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항공·방산 부문 매출 확대로 영업이익 큰 폭 개선,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항공산업 부문의 해외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9% 성장한 994.7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80.8억 원(영업이익률 8.1%)으로 전년 대비 63.3% 큰 폭 증가하였다. 또한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178.4억 원, 영업이익 31.4억 원, 당기순이익 40.6억 원을 시현하였다.

■ 통신·방위·항공 3대 사업부문 운영, 항공산업 비중 41.7%로 핵심 매출원 부상

동사의 2025년 매출구성은 항공산업(41.7%), 방위산업(31.1%), 통신산업(27.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산업 부문이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2023년 738.8억 원, 2024년 930.8억 원, 2025년 994.7억 원으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 영업이익 큰 폭 개선 및 2026년 1분기 수익성 가파른 회복

2024년 동사는 매출액 930.8억 원(YoY +26.0%)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 49.5억 원(영업이익률 5.3%), 당기순이익 80.9억 원(순이익률 8.7%)을 시현하였다.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12.2%에 그쳐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 폭은 다소 제한되었으나, 영업외 수익 인식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6.9% 성장한 994.7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이익은 80.8억 원(YoY +63.3%, 영업이익률 8.1%)으로 큰 폭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은 58.0억 원(순이익률 5.8%)으로 전년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항공산업 부문의 매출 확대와 사업 구조 다변화 효과로 수익성 개선 기조가 본격화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축소된 178.4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이익은 31.4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흐름을 시현하였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항공산업 부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구성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17.6%까지 큰 폭 상승하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강화와 1분기 부채비율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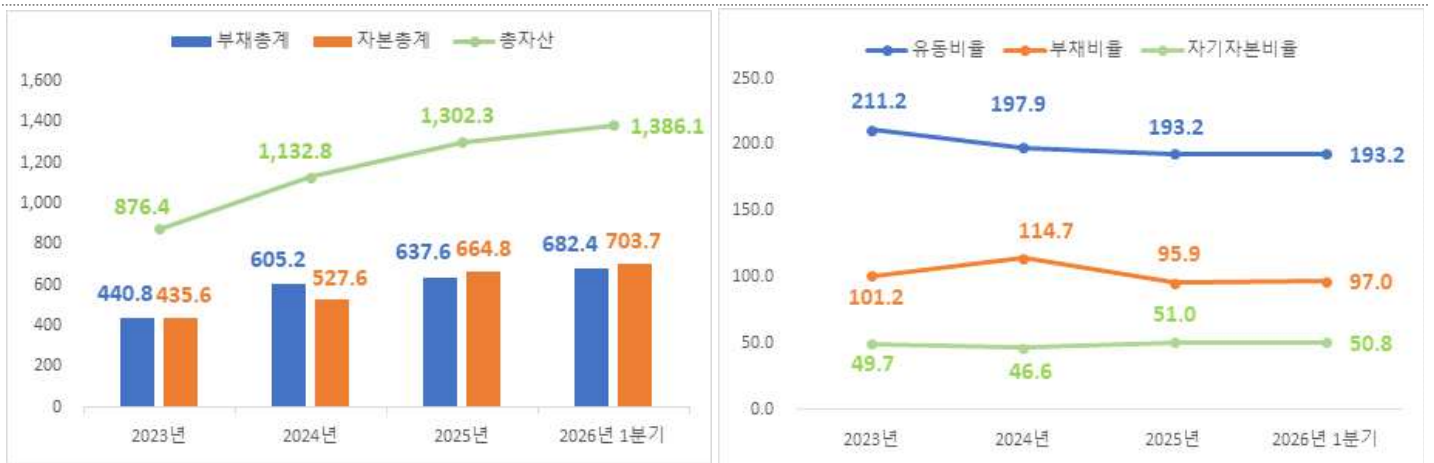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56.4억 원 확대된 1,132.8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4.3억 원 증가한 605.2억 원, 자본총계는 92.0억 원 증가한 527.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3.3%p 하락한 197.9%, 부채비율 13.5%p 상승한 114.7%, 자기자본비율 3.1%p 하락한 46.6%).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69.5억 원 확대된 1,302.3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2.4억 원 증가한 637.6억 원, 자본총계는 137.1억 원 증가한 664.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4.8%p 하락한 193.2%, 부채비율 18.8%p 하락한 95.9%, 자기자본비율 4.4%p 상승한 51.0%).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33.4억 원 증가한 1,386.1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7.9억 원 감소한 682.4억 원, 자본총계는 171.3억 원 증가한 703.7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4.2%p 상승한 193.2%, 부채비율 38.3%p 하락한 97.0%, 자기자본비율 8.3%p 상승한 50.8%).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738.8	930.8	994.7	181.8	178.4
매출액증가율(%)	9.0	26.0	6.9	60.1	-1.9
영업이익	44.1	49.5	80.8	4.4	31.4
영업이익률(%)	6.0	5.3	8.1	2.4	17.6
순이익	38.0	80.9	58.0	3.2	40.6
순이익률(%)	5.1	8.7	5.8	1.8	22.7
부채총계	440.8	605.2	637.6	720.3	682.4
자본총계	435.6	527.6	664.8	532.4	703.7
총자산	876.4	1,132.8	1,302.3	1,252.7	1,386.1
유동비율(%)	211.2	197.9	193.2	168.9	193.2
부채비율(%)	101.2	114.7	95.9	135.3	97.0
자기자본비율(%)	49.7	46.6	51.0	42.5	50.8
영업현금흐름	5.4	124.4	-35.0	-30.9	87.3
투자현금흐름	-59.1	-141.1	-42.4	-5.4	-36.7
재무현금흐름	80.0	63.3	70.6	0.2	-24.1
기말 현금	102.8	151.3	142.7	117.1	168.8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통신산업 부문은 5G·AI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광중계기(DAS) 수요 견조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유지될 전망이다. 방위산업 부문은 K-방산 수출 호조와 방산무선통신 장비 국산화 흐름을 배경으로 무선통신보드 수주 회복이 기대되며, 항공산업 부문은 글로벌 공항 인프라 신증축 사이클과 신흥국 항행안전설비 현대화 수요로 DVOR 해외 수출 모멘텀이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사 종속회사 (주)모피언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국내 항공용 항행안전시스템 제조사로서 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MOPIENS INDIA PRIVATE LIMITED를 통한 인도 등 신흥 시장 진출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 기조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흐름은 동사의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방위 부문은 점진적 수주 회복이 기대된다. 한편 항공 부문의 1분기 매출 비중이 61.2%까지 확대된 점은 동사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항공산업이 수익성 핵심 부문으로 부상하였음을 시사한다.

동사의 2026년 매출은 항공사업 부문의 수출 모멘텀과 통신·방위 부문의 점진적 회복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4% 성장한 1,148억 원이 전망되며, 항공산업 수출 모멘텀의 본격화와 수익성 개선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기대된다. 본 전망치는 동사의 DVOR 해외 수출 확대와 K-방산 수주 회복이 본격 반영될 경우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738.8	930.8	994.7	1,148.0
통신산업	231.6	322.7	270.6	292.0
방위산업	350.9	424.4	308.9	312.0
항공산업	156.4	183.7	415.3	544.0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3대 사업 동시 성장의 모멘텀, 일본 DAS 진입이 핵심 분기점

동사는 5G 인빌딩 중계기 수요 확대, 항공항행안전시스템 해외 수출 지속, K2전차 연계 방산 수출 확대라는 세 가지 성장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 통신 3사 DAS 입찰 참여는 중장기 해외 매출 확대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항공 수출 급성장과 방위 수출 확대로 연결 포트폴리오 균형 강화

동사의 매출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항공사업 부문의 급성장이다. 자회사 (주)모피언스의 해외직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항공사업 부문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약 41.7%를 차지하는 최대 사업부문으로 부상하였으며,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3.3% 급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모피언스는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부탄 등 세계 23개국 500여 개소 이상에 항공항행안전시스템을 공급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법인 설립(2023년 8월) 및 인도 판매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아시아 신흥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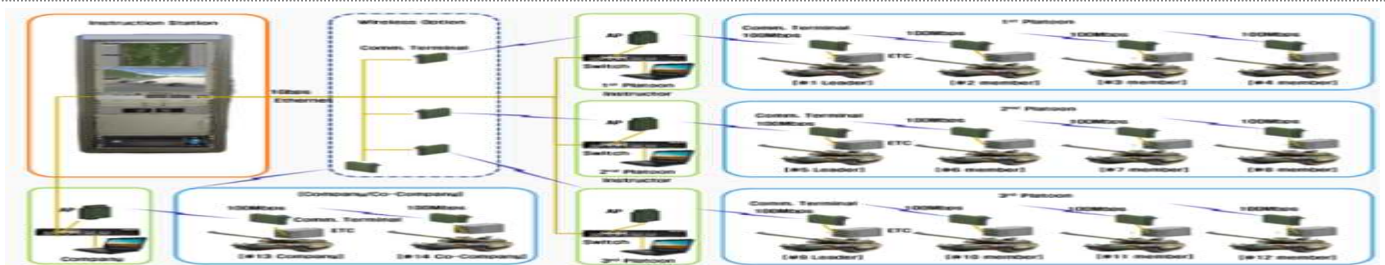
■ 일본 DAS 시장 재진입과 5G-6G 중계기 기술 개발 투자 지속

동사는 국내 통신 시장 성숙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통신 3사 대상 DAS 중계기 입찰 참여를 핵심 해외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현지법인 (주)TUBEK을 통해 현지 영업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 TELEC 인증 체계 준수 및 중립형(Neutral-host) DAS 기술 개발로 일본 시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6년 4월 이후 6G 기술 표준화 논의 가속화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테마주 전반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동사 역시 차세대 중계기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6G 생태계 참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방위 사업 다각화 및 고덕비즈밸리 신사옥 이전으로 미래 성장 인프라 구축 완성 전망

자회사 (주)현대제이콤은 폴란드 K2전차 수출용 ETU(내장훈련장치) 공급 및 K1계열 전차 차체전원분배상자 디지털화 개조개발, 차세대 유·무인 복합무기 체계 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방위사업의 수주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입주를 위해 총 171억 5,900만 원 규모(기산텔레콤 지분 140억 7,000만 원)의 투자를 2023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하였으며, 2026년 8월에 입주하여 사업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생산·연구 역량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비상방송설비 시장(연 200억 원 규모) 신규 진출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BMT 통과를 완료하여 추가 수주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림 11. K2 수출형 내장훈련 시스템



자료: (주)현대제이콤 홈페이지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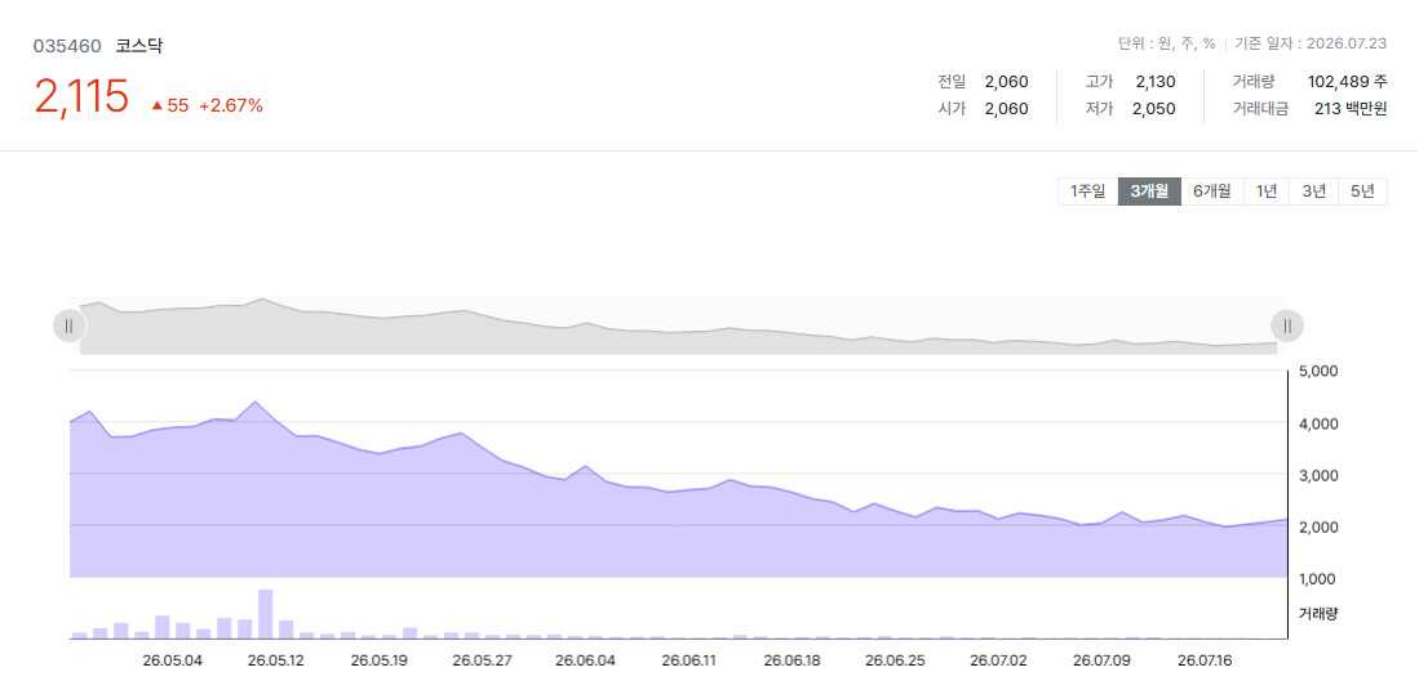
☒ 생성형 AI 답변 :
“기산텔레콤은 자회사 모피언스의 해외 항행안전시스템 공급 확대와 원가 효율화에 힘입어 최근 연간 및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강력한 수익성 개선을 입증했으며, 향후 폴란드 등 방위산업 수출 참여와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견조세를 바탕으로 견고한 장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기산텔레콤	X	X	X